

1974年度 損害保險事業의 展望

金 炳 奇 (韓國原子力保險「폴」事務局長)

1. 머릿말

우리 나라 經濟는 第1次 및 2次 經濟開發 5 個年計劃을 通해 年 平均 9.9%라는 高度의 成長을 이룩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로 우리 나라 經濟가 繼續的으로 發展해 나간다면 1980年代에 가서는 100億 「달러」 輸出과 1人當 G.N.P.는 1,000 「달러」를 達成할것으로 내다 보았다.

그러나 第3次 5 個年計劃 第2次年度인 1973 年은 實로 國內外的으로 多事多難하여 우리 나라 經濟를 單純히 數字的인 根據下에 發展「모델」을 推定하여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國際的으로는 印度支那에서 停戰과 더불어 中東戰爭의 발발, 資源戰爭의 樣相을 띤 美國의 古鐵과 食糧禁輸措置, 「아랍」의 石油武器化 등으로 對外 依存도가 높은 우리 나라 經濟는 앞으로 많은 문제점에 逢着하게 되었다.

損害保險業은 工業化의 進陞과 더불어 比例하여 發展해 나가는 것임을 생각할 때에 이와 같은 外的 經濟與件의 急激한 變化는 保險業에 從事하는 우리들로서 큰 關心事가 아닐 수 없다.

損害保險의 發展을 左右하는 要因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事項을 考慮할 수 있다.

첫째, 長期的(2~3年) 要因(Factor)으로서
① 保險制度의 改善과 實質的效用的 增加 ② 保險料負擔의 輕減 ③ 「서비스」의 擴大 및 豫防의

發達 ④ 經濟發展 및 高資產業의 發達 ⑥ 所得의 增加와 投資의 擴大 ⑤ 生活水準의 向上 및 合理的意識의 普及等을 들 수 있겠고

둘째, 短期的(1年 未滿) 要因으로는 ① 一般景氣의 動向, 國民所得의 크기 ② 國民所得의 支出狀況 및 金融狀況 ③ 產業活動 및 物價水準 ④ 新規產業投資 및 住宅建設 ⑤ 保險料率의 變化 ⑥ 季節災害 및 心理狀況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세째, 經濟外的 要因으로서 異常한 社會條件이나 政府의 介入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以上과 같은 損害保險事業의 發展을 規制하는 要因을 염두에 두고 74年度 損害保險業의 展望에 대하여 몇 가지 點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2. 새로운 現實과 74年度의 우리나라 經濟

石油波動이 長期化하여 惡化一路에 있으며 價格이 大幅的으로 引上되어 있다.

그리고 世界的인 國際貿易의 鈍化가 豫想되는 가운데 國內的으로는 繼續되는 物價의 上昇, 重化學工業育成을 위한 內資調達 및 國民福祉年金制의 實施에 따르는 國民의 새로운 負擔 등으로 74年度에는 多樣한 問題들을 안고 있다.

物價上昇은 비단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全世界的인 現象으로서 今年 上半期中 美國, 日本, 佛蘭西와 같은 主要先進國의 物價上昇率이 10%를 上廻함으로써 平常時의 2~3倍를 記錄하였다.

이러한 物價의 暴騰은 世界景氣의 同時 上昇으로 因한 基礎原資材의 需要 增大와 供給不足, 國際通貨不安,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招來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國際間的 競爭的인 高度成長 政策으로 環境汚染과 資源枯渴, 그리고 自國保護를 위한 保護貿易의 強化와 「블럭」(Block) 經濟의 深化 등, 世界秩序는 波動과 混亂속에 소용돌이치고 있다.

經濟專門家들은 73年度 世界經濟의 平均成長率을 6% 線으로 豫想, 最近 몇 年間의 平均成長率 3.4%에 比해 보면 73年은 好況 속의 高度成長을 나타낸 셈이다. 그러나 74年度의 景氣展望은 어둡기만하다. 「國際經濟協力機構」(O.E.C.D)는 世界經濟가 不況의 局面에 접어들어 3%의 成長에 머물 것이라 豫測하고 있다.

「韓國開發研究院」(K.D.I)은 74年度 우리 나라 經濟成長率을 73年度 成長率 16~17%(豫想) 보다 낮은 12.8%로 推定하고 있으며 一般經濟界의 輿論은 悲觀的으로 7~9%線을 내다 보고 있다.

火災特種保險과 關聯이 깊은 機械設備投資를 보면 73年度에 48.7%로 推定하고 있으나 74年度에는 同部門의 投資를 7% 線으로 끌어 내리고 그대신 住宅과 重化學工業基地造成을 위한 公共投資를 總固定資本形成의 22.1%까지 大幅增加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이와같은 國內外 추세로 보아 世界貿易도 위축하여 世界各國의 輸入量은 一般的으로 景氣安定과 投資者들의 假需要減退로 73년에 比해 줄어들 것이라 지적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 對外輸出도 올해의 84.9% 伸張(推定)에서 40%水準으로 下落할 것이라 豫測하고 있다.

74年度의 이러한 全般的인 國際景氣의 下落 내지 鈍化現象은 貿易依存度가 60% 線에 이르는 우리 經濟에 큰 不安의 要素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 나라의 輸出은 70% 以上이 美國, 日本市場에 依存하고 있는데 74年度 美國의 經

濟成長率이 6% 線에서 2~3%로 떨어지고 日本의 73年度 豫想成長率 12~13%가 9% 以下로 下落할 것이라는 展望은 輸出產業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다.

近來 世界經濟動向은 1930年代(경제 공황)와 같은 樣相을 띠고 있다.

即, 金本位制 代身 「달러」價値의 不安定, 植民地支配代身 多國籍企業에 依한 經濟支配, 그리고 政治的으로는 美蘇 兩極 體制에서 美國, 소련, E.C, 中共, 日本등 勢力多極化로 그 當時列強에 依한 角逐戰을 방불케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점에 對하여 「런던」에서 發刊되는 「이코노미스트」(Economist)誌는 74年度 世界經濟動向을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이라는 새로운 用語로서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不況用語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短期的 經濟停滯 속의 「인플레이션」(Inflation)을 뜻했다면 新造語 「슬럼프플레이션」은 長期不況속의 物價暴騰 現象을 意味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74年度 損害保險事業展望

73年度 우리나라 經濟는 世界的인 好況 속에 異例的인 好景氣를 누리었다.

73年度 3/4分期까지 經濟成長率은 22.1%임이 이미 判明되었고 油類波動의 負의 效果를 감안하더라도 今年度 經濟成長率은 16~17%線에 達할 것이라 함은 이미 指摘한 바와 같다.

이와같은 急成長은 前年對比 84.9%의 輸出增加와 33.6%나 크게 膨창한 「製造業」에 의해 主導되었으며 豊作이 이에 加勢한 데 起因한다.

1973年 12月 31日 現在 損害保險業界 總資產은 59,974百萬元으로 72年末 現在 41,632百萬元에 比하여 30%가 增加하였다.

다음 原保險料 舉收狀況을 보면 73年 1月부터 12月末까지 35,423百萬元을 거두어 들임으로써 72年度 거수액 21,857百萬元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그리고 支出面에서 原保險金 支給額은 12月末 現在 22,209百萬元이 支給되어 72年度 支給額 11,075百萬元을 능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數字로 볼 때 73年度 우리 나라 損害保險事業이 經濟成長과 더불어 擴大되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단지 原保險金支給額이 좀 過多하지 않나하는 느낌을 주나 이것은 72年末 大形事故로 손꼽히는 「시·스타」(Sea Star)호, 「동방」(Dong Bang)호의 沈沒 사고와 大然閣, 市民會館, 火災事故에 대한 保險金支給이 今年初에 이루어진것을 考慮할 때 74년도 초반에 일어난 潤成紡績火災事件 등 大型事故로 인하여 損害保險事業의 營業利益은 樂觀視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이 73年度 損害保險事業은 經濟成長에 比例하고 있으며 또 15% 線까지 차츰았던 69年度의 G.N.P. 成長率이 70年度에 7.9%, 71年度에 9.2%, 72年度에 7%로 鈍化하였을 때에 舉收保險料도 이에 比例하여 완만한 伸張을 보였음을 상기할 때 損害保險事業의 成長은 景氣變動이나 經濟規模의 擴大에 대한 依存度가 極히 높음을 알 수 있다.

74年度 우리 나라 經濟는 對內外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70年代初와 같은 9% 程度의 成長을 이룩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한편 다른 一部층에서는 豫想外로 어려운 試鍊을 겪어 經濟成長率이 7% 以下로 떨어지고 物價高가 극심한 것이라고 憂慮하고 있는 것 같림 속에도 새해에는 42個 大規模工場이 竣工을 보게 되고 第2 綜合製鐵과 第3 造船所 등 超大型級 工場들이 着工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웃 나라 日本만 해도 豫測不許로 9%, 2.5%, 또는 「마이너스」 成長 등 갈광 질광하고 있는 실정이다.

如何間 巖然하고도 避할 수 없는 事實은 資源不足과 對外依存度가 높은 우리 나라 經濟는 石油, 紙類, 穀物, 古鐵 등 原資材價格의 上昇으로 어느 정도의 「스태그플레이션」은 免하지 못할 것 같다.

이와 같이 物價高와 經濟成長의 鈍化가 豫想되는 74年度에 損害保險事業은 얼마만큼 影響을

입을 것인가는 우리들로서는 關心事가 아닐 수 없다.

損害保險은 需要者가 主로 企業이며 保險期間은 一年以下の 短期인 것이 普通이므로 他産業에 比하여 物價高의 影響을 比較的 적게 받는다 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어떤面에서 「인플레이션」은 船積物資, 工場이나 機械 등 付保物件의 保險價額을 上昇시켜 收入保險料의 增大를 가져오는 正의 側面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生産萎縮과 物價高로 一般 家計는 甚한 타격을 입을 것이나 企業倒産이 續出할 程度의 「스태그플레이션」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74年度에 있어 損害保險事業은 그리 큰 影響을 받지 않을 것이라 말하여도 좋다.

그러나 損害保險事業은 무엇보다도 工業化의 進行과 開放經濟體制에 의한 輸出入의 「불륨」(Volume)을 前提로 하여 擴大發展을 가져오는 것인데 74年度의 經濟成長率은 이미 政策當局에서 今年度 水準보다 낮게 잡고 있으므로 計劃대로 成長目標가 達成된다 해도 73年度의 損害保險事業成長率(豫測)을 維持하기는 힘들고 우리가 70年代初에 겪었던 「스태그플레이션」期에 있어서의 損保成長率을 따라간다면 多幸일 것이다.

다음 損害保險은 本來의 性格上 企業保險이라 하나 自動車保險, 損害保險 「풀」을 通하여 引受하는 火災物件의 一部, 그리고 近來 몇몇 社가 主力하여 市場을 開拓하고있는 長期火災, 家計綜合保險, 交通傷害保險같은 것들은 生命保險과 같이 家計保險의 領域에 屬하는 것으로서 74年度에 「인플레이션」으로 一般 國民의 實質購買力이 下落할 때에는 이들 保險의 需要는 減退할 것이며 既存契約分의 失効解約率이 높아질 것이 豫想된다.

그러나 이들 保險은 工場이나 船舶, 또는 輸出入貨物과 같이 資本主義經濟라는 制度的 「메카니즘」(Mechanism)에 의하여 거의 受動的으로 市場이 創造되는 企業保險과는 달리 保險外務員을 통한 積極 販賣의 樣相을 띠고 있어 潛在市場

(potential market)을 開拓하는데 모든 保險會社가 本格的으로 努力한다면 展望이 悲觀的인 것만은 아니다.

단지 油類波動으로 지금까지 高度成長을 해온 自動車保險의 伸長率은 例年에 比하여 相當히 떨어질 것이며 銀行貸出에 隨伴하는 火災保險(損保 pool 引受契約)은 企業이나 家計의 銀行依存度가 높아질 것이나 이 部門의 保險은 政府의 巨

속 政策으로 그 効果가 相殺되어 別變動이 없을 것으로 내다 보인다.

끝으로 保險企業 經營面에서는 現在 높은 水準의 甲勤稅와 新設된 住民稅 등 各種 新種 稅金 負擔이 늘고 國公債의 強制消化가 增加되며 社會保障制度의 一環으로 實施되는 「國民福祉年金」은 雇傭主 4%, 被傭人 3%의 釀出을 要求하고 있어 企業側으로 볼 때에 4%라는 國民福祉年

望樓의 鄉愁

내 나이 5,6세 때 인가 보다.

그 당시 나의 집은 뒤로는 술레골이라고 부르던 종묘담을 낀 작은 골목길이었고 큰 길로 나오면 소방서와 단성사가 자리한 종로3가 한 길을 앞에 둔 鳳翼洞이었다.

지나간 옛날 이야기처럼 아물거리던 그 시절의 記憶들 속에서도 그래도 鮮明하게 생각키우는 것들이 더러는 있다.

저녁이던 종묘에는 술개배들이 새까맣게 하늘을 덮었고 길가에는 아카시아꽃들이 만발하여 향내를 피웠다.

이러한 기억들 속에서도 더욱 뚜렷한 것은 하늘을 찌를 것 같아만 보이던 消防署의 望樓와 연유된 것이요, 다른 하나는 映畫館 畫面에서 볼 수 있었던 어흥거리며 울부짖는 사자의 頭上이다.

그 당시 나의 언니는 나하곤 나이가 차이가 심해 혼기에 달한 성숙한 처녀였다.

결혼을 앞두고 신랑감과 수줍고도 즐거운 「데이트」를 할 양이면 나는 눈치도 없이 알미운 방해자가 되어 그들 사이에 끼이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던 「슈우크리임」을 싹껏 얻어 먹

을 수 있었고 재미있는 영화를 감상할 수 있었다.

그 때는 주로 외국 영화인지라 자막을 읽는다거나 내용을 알턱이 없고 그저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화관람 재미는 충분했다.

그들 영화의 화면중에서도 어흥거리며 울부짖는 사자의 얼굴은 내게는 가장 흥미있는 것이었다.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소리치는 사자의 모습은 동물원의 그것보다 더욱 힘차고 멋있어 보였다.

咆哮하는 사자의 頭上은 대부분의 영화의 처음 장면에서 볼 수 있었지만 간혹 그것이 나오지 않는 영화를 대하게 되는 날엔 뭔가 불만스러워 실망에 차서 돌아오곤 했다.

「슈우크리임」과 포효하는 사자의 모습으로 자주 나를 기쁘게 해주던 언니가 드디어 시집을 가고 말았다.

엄마를 잃은 새처럼 왜 그렇게 슬프고 데려가는 형부가 미움던지. 시집을 가던 날 뿐 아니라 그 후로도 언니가 친정 나들이를 다녀가는 날이면 언니 뒤에 매달려 따라가겠다고 발버둥질을 쳤다.

나 몰래 도망가는 언니를 따라

엄마의 만류도 아랑곳 없이 빨간 고무신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언니 뒤를 쫓았다. 한참 따르다 보면 어느새 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큰 갈가 소방서 앞에 다다르게 된다.

사라진 언니를 怨望하며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 보이는 望樓를 바라보며 그 키를 부러워하곤 했다.

아스라하게 높이만 보이는 그 속에서 왔다갔다하는 사람은 꼭 장난감 꼬마 병정 같았으며, 그 위에 올라가면 언니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보일 것만 같았다.

저 아저씨는 세상을 다 내려다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젖어 언니의 생각도 잊은 채 오랫동안 서 있다 뒤 따라온 엄마 손에 이끌려 돌아오곤 했다. 그 후로도 언니가 보고 싶을 때면 그 망루 밑에 가서 그 높은 것을 부러워하며 언니가 사는 집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동화 속을 헤매며 그 높은 세상을 거니는 아저씨를 바라보곤 했다.

그 때의 내 어린 思考에는 불에 대비해 財産과 人命의 被害를 막아야 한다는 望樓의 使命보다도 망루의 높은 偉容이 더욱 매력적이었나 보다.

그래서 쓸쓸할 때면 망루를 찾아 시간을 보내곤 했다.

金 釀出金의 負擔은 實質的으로 人件費 4% 上 昇을 意味하는 것이된다.

即 이 말은 74年度에 있어 國民負擔이나 物價 上昇率이 完만하다면 保險企業이 負擔하는 4% 釀出金을 賃金의 不引上이라는 手段을 通하여 釀僱人에 轉稼시킬 수도 있겠으나 急激한 物價上 昇과 내뿜 强要로 企業側에서 負擔할 公算이 크 기 때문이다.

保險業은 一般 產業과 달라 設備資金이 드는 것이 아니라 人間の 手挽와 手挽, 그리고 종이 와 「펜」(pen)으로 市場을 創造하는 事業이므로 紙類價格과 人件費의 上昇은 一般管理費의 負擔을 늘게 할 것이다.

保險事業의 展望을 豫測함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말한 經濟的인 側面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非 經濟的인 要因으로서 異常한 社會條件이나 政府

피난을 다녀온 후 어느 때가 그 소방서에서는 불자동차가 바쁘게 드나들었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 응성대고 있었다.

軍人들이 임시 병원으로 쓰던 壽松國民學校가 불타고 있다고들 했다.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患者들의 待避가 더욱 걱정이라고들 쭈군었다.

온통 하늘은 별장고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내 마음도 왜 그렇게 무섭고 떨리기만 하던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저 불로 맨 처음에 저 망루의 望樓守가 발견을 하였겠지 하고 생각하니 불자동차의 隊列이 망루의 當當함을 보여 주는듯 했다.

그 때로부터 20여년이 흐른 지금 세월의 흐름과 함께 세상은 너무도 많이 변해 있다. 그렇게 높아만 보이게 하던 망루가 있는 근처를 떠나 몇 번이나 이사를 했다.

나는 그 때의 나만한 어린애의 엄마가 되었고, 나를 무척도 아껴주고 내가 엄마처럼 따르던 언니는 장성한 자녀를 데리고 앞으로는 만나볼 수 없을지도 모를 떠나면 異國으로 이민을 간 지 오래다.

이렇게 모든 것이 변해 버린 지금도 망루는 그 때의 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이고 영화관의 화면에선 아직도 사자의 모습은 여전하다.

그러나 내 키가 크고 내 視野가

넓어진 지금 망루는 높아 보이지도 신기하지도 못하고 영화 화면의 사자의 모습은 영화의 흥미있는 「스토 오리」가 아니라 미국 영화 회사의 商標라는 것도 티득하게 되었다.

문명과 경제의 성장은 망루보다 몇 배나 키가 큰 고층건물의 鴻수를 이루어 놓았으니 오늘의 어린이들에게는 수십층 빌딩의 「스카이·라운지」가 신기하지 망루가 신비스러울 리 없을 게다.

이제 망루는 성장을 중지당한 채 고층건물에 가려 그 視野를 잃고 만 것이다.

주위에 폭 파묻혀 망루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색할 지경으로 그 당당하던 偉容이 초라해져 버린 것이다.

고고한 위치에서 불을 발견하여 災難을 막아야 한다는 등대수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기에는 기력을 잃은 채 하나의 象徵의 存在로 國民學校 教科書에서나 겨우 名目을 유지하며 望樓守조차도 망루를 버리게 되었다니...

이것도 세월의 흐름에 便乘함이리라.

화재의 속도와 종류는 늘어만 가고 앞을 가리운 망루를 대신해서 119라는 전화번호로 탈바꿈을 한 것이다.

불조심 포어 밑에 상징적인 망루

의 모습은 119라는 숫자로 대신한 지 오래다. 이제는 불이 발생한 후에 機動力을 發揮하기보단 미리 화재에 대한 點檢과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걸 터득할 수 있으며 또 이를 수행하는 시대가 되었다.

불이 시야로 들어오길 바라는 망루의 사명보다 더 좀 빠른 수행능력을 찾아야만 하리라.

지금도 길을 가다 有備無患이란 어려운 단어로 장식한 소방서를 대하게 되면 번함없는 모습에 몽클한 정을 느끼게 한다.

어느 것보다 작은 소방서 건물 그 건물 귀퉁이에 굴뚝처럼 서 있는 그 초라한 望樓의 모습은 주인인 망루수조차도 보이지 않는다.

時時刻刻으로 변화를 동반한 세월을 망루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대로 停滯하고 있다 보다.

현 상태에서 망루의 모습이 그대로 지속한다면 後孫을 위해 흘러간 祖上의 모습으로 保存하는 데 그치게 되지 않을까?

이처럼 望樓도 그대로 스러져 가기 보단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보다 더 높은 건물이나 빠른 機動力으로 바뀌어 그 視野를 찾아야만 하지 않을까? <崔明姬>

의 介入, 그리고 保險企業家가 逆境을 이겨나가는 意志와 對處能力 등에 의하여도 左右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첫째, 74年度에는 政府의 介入이 積極化하거나 또는 從來와는 다른 政策이 實施될 展望이 크다.

73年度부터 實施되기 始作한 主要都市에 있어서 高層建物の 火災保險(賠償責任付) 加入義務化같은 것은 政府의 介入에 의한 損保事業擴大의 보기(例)로서 그 效果는 74년에 들어가서 本格的으로 나타나 損保事業의 成長에 보탬이 클 것이며 反面 그의 反對給付로 保險資産의 重化學工業育成에의 投資가 중용될 公算이 크다.

이는 損害保險事業에 있어 保險資金의 國家에의 寄與度を 높이는 것을 意味하나 한편 保險企業側으로 볼 때에는 確定利付債權인 國公債投資는 인플레이에 견디기 어려운 不利한 投資라고 볼 수 있으므로 保險會社의 實質的인 投資收益, 다시 말하면 名目上의 收益이 아니라 企業의 內實을 期하는 投資, 그러한 方向의 投資는 相對的으로 減少할 것이다.

또 위의 強制保險의 實施와 더불어 탄생한 「韓國火災保險協會」의 本格的인 活動으로 罹災率의 減少를 가져온다면 損保企業의 支出面에서 相當한 得을 期待할 수 있겠다.

그리고 監督當局인 財務部에서는 74年度에 證券保險局에 「指導課」를 新設하여 監查機能의 強化와 實質監督權의 全面強化態勢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傳해 듣고 있어 이것도 74年度 損害保險事業에 多少 影響을 미치지 않을까?

4. 맺 는 말

眞實로 急變하는 情勢下에 74年度를 맞이하는

우리 保險人은 새로운 與件에 對處하는 새로운 覺悟를 갖어야 하겠다.

「드러커」(Drucker)는 企業經營의 目的이 利潤追求에 있다는 從來의 觀念을 否認하고 그 目的을 社會的職能에서 求하여 「고객의 創造」 또는 「社會의 創造」에 있다고 主張하였다.

이 主張에 의하면 企業의 存立과 發展은 고객 또는 市場에 의하여 決定되나 企業은 그러한 스스로의 存立의 基礎가 되어 發展을 規定하는 「고객」, 또는 市場을 스스로 創造할것을 目的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企業의 存續과 繁榮은 그 社會的 責務이며 이 責務遂行을 위해서 企業 스스로의 必要에 의해서 「고객」 또는 「市場의 創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保險事業은 「인플레이」나 景氣變動에 대하여 相對的으로 強하여 어려운 해를 맞이하는 74年度에도 他產業과 같이 企業倒産이나 조업 단축 등의 極惡의 事態는 念慮될 것이 없다고 하여 安心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家計綜合保險, 長期火災, 長期交通傷害 등 家計保險의 領域에 파고들어 無限한 「潛在市場」에 눈길을 돌리는 同時에 原子力保險과 같은 새 時代의 保險에 主力하여 保險事業의 成長과 外貨獲得에 힘쓰으로써 눈앞에 닥친 逆境을 好轉機로 삼아야 할 것이다.

結論的으로 말하여 74年度 損害保險事業은 業種의 生理로 보아 從來와 같은 經營으로도 成長의 鈍化가 豫想될 뿐 破局으로 까지 몰아갈 念慮는 안해도 좋으나 確實히 오랜 多眠狀態에서 깨어날 때가 오지 않았을까 한다. —끝—

